

# 엔도 슈사쿠 『오바카상(おバカさん)』 고찰

## - 엔도의 중간소설의 의미 -

김하연\*  
k\_ganbare@naver.com

### <目次>

- |                     |                             |
|---------------------|-----------------------------|
| 1. 서론               | 3. 『おバカさん』으로 본 엔도의 중간소설의 특징 |
| 2. 『おバカさん』에서의 신의 모습 | 4. 결론                       |
| 2.1 등장인물들의 인식변화     |                             |
| 2.2 부성에서 모성으로       |                             |

主題語: 중간소설(middlebrow novel), 순수소설(polite literature), 거리감(a sense of distance), 성화(sanctification), 가톨릭(catholic)

## 1. 서론

엔도 슈사쿠(遠藤周作:1923-1996, 이하 엔도라고 함)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톨릭문학 작가이다.

일본의 많은 작가들이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으나 대부분 신앙으로 정착되지 못한 채 문학의 길로 감과 동시에 가톨릭과 결별하게 된다.<sup>1)</sup> 하지만 엔도는 일본 전후의 가톨릭문학계의 선구자로서 평론과 소설을 통하여 다른 작가가 파고들지 못한 종교적과제를 추구해왔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톨릭의 유일신을 탐구해가며 일본문단에서 황무지와 같았던 가톨릭문학을 한 장르로서 구축하였다. 하지만 다케다 토모주(武田友寿)는 엔도를 종교와 문학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대표적인 가톨릭 작가라고 말했다.<sup>2)</sup>

엔도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청년이 되어 자신의 비자발적 세례를 ‘몸에 맞지 않는 양복’으로 비유하며 이질적이고

---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1) 久保田暁一(2006)『日本の作家とキリスト教』朝文社, p.7

2) 武田友寿(1975)『戦後文學における遠藤周作』『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6月號, p.55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그는 적극적으로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맞게 고쳐 입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자신의 평생 문학테마로 삼았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예수에 대한 거리감에 대해 에세이『나와 그리스도교(私とキリスト教)』에서 밝혔다.

일본인이라는 사실과 가톨릭 신앙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 가르침이 보편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가톨릭의 전통도 문화도 역사도 전혀 없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가톨릭에 물들지 못하고 오히려 가톨릭과는 상반되는 감각이 숨어있다는 것을 청년이 되어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sup>3)</sup>

거리감이 있는 가톨릭을 어떻게 하면 가까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추구했다는 평가<sup>4)</sup>와 같이 엔도는 서구의 유일신을 일본에서 어떻게 토착화시킬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단으로서 소설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다.

엔도의 작품들은 그 장르와 내용에 있어서 순문학, 중간소설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바다와 독약(海と毒薬)』<sup>5)</sup>, 『침묵(沈黙)』<sup>6)</sup> 등으로 대표되는 순문학 작품군, 다른 하나는 『오바카상(おバカさん)』<sup>7)</sup>, 『헤치마군(へチマくん)』<sup>8)</sup>, 『내가·버린·여자(わたしが・棄てた・女)』<sup>9)</sup> 등으로 구성되는 중간소설 작품군이다. 두 가지 군의 명칭은 다양하다. 경소설을 비롯해 대중문학, 신문소설, 중간소설, 엔터테인먼트소설 등 같은 뜻의 여러 명칭이 있지만 필자는 순수문학작가가 대중문학지에 쓴 소설 이란 의미로 중간소설(中間小説)<sup>10)</sup>을

3) 遠藤周作(2000)『私とキリスト教』全集12, p.306

4) 笠井秋生・玉置邦雄編(2000)『作品論 遠藤周作』双文社出版, pp.88-89

5) 『海と毒薬』文學界 6・8・10 게재. 2차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

6) 『沈黙』1966년 발표. 新潮社에서 간행

7) 『おバカさん』1959년3월 26일에서 8월 15일까지 아사히신문에서 연재 → 신문연재 최종호로부터 2개월 후, 같은 해인 10월 15일에 단행본『오바카상(おバカさん)』가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1962년 8월 15일 문고판인『오바카상(おバカさん)』는 가도카와(角川)서점에서 문고판 간행→1971년 4월 15일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에서 단행본 개정판 간행

8) 『へチマくん』지방지 1960년 5월에서 11월까지 연재. 1961년 5월 新潮社에서 간행됨.

9) 『わたしが・棄てた・女』1963년 1월부터 12월까지「주부의 벗(主婦の友)」에 연재되어 1964년 3월에는 「문예춘추신사(文藝春秋新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

10) 중간소설은 순문학과 대중문학과의 중간에 위치하는 소설을 가리키는 문학용어이다. 전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일본 고유의 말이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순문학 작가가 순문학의 예술성을 갖추면서, 대중문학의 재미를 가미한 소설을 썼다. 그러다가 순문학 작가가 순문학으로 연마한 기술을 응용해서 고급스런 대중문학을 쓰게 되었는데, 순문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중문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소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이 용어 성립은 시기적으로는 일본의 패전 후이며,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요구하는 일반 독자층을 위해서 작가들이 고급스런 대중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거기에 『별책 문예춘추(別冊文藝春秋)』(1946년 창간)나 『일본소설(日本小説)』(1947년 창간), 『소설신조

사용하기로 한다.

엔도는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이른바 소설다운 소설에 대한 꿈”이 있다며, 그 꿈은 순문학의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좀처럼 할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나는 신문소설이라는 무대에 이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이다”<sup>11)</sup>라고 말한다.

엔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독자들이 즐긴 소설잡지, 주간지, 부인지 등에 소설작품을 발표했었다. 폐결핵의 재발로 인해 병상에 있으면서도 엔도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중간소설을 썼고, 퇴원 후 자신의 대표작인 『침묵』을 간행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기존의 대부분의 국내외의 연구가 순문학을 중심으로 되어있고 순문학에 비해 중간소설은 통속적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오바카상』이 연재된 당시 독자들의 호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동시대의 평가는 거의 없고, 가톨릭 작가인 엔도가 처음 신문소설을 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문」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가사이 아키후(笠井秋生)도 『오바카상』을 『침묵』을 넘어 『사해의 주변(死海のほとり)』<sup>12)</sup>에 이르는 엔도의 발자취의 기점에 위치하는 작품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스톤을 엔도의 예수상의 원형<sup>13)</sup>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오바카상』은 『사해의 주변』에서 묘사하고 있는 동반자 예수의 모티브와 관련이 있다.

「おバカさん」이하를 다 읽은 지금, 나는 그 여러 작품들이 엔도문학의 세계를 형성하는 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역시 경소설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소설군과 「沈黙」그 외의 순문학적 작품과의 사이에, 작가의 자기분열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4)</sup>

(小説新潮)』(1947년 창간)와 같은 잡지가 생겨나 오락물이 유행한 것도 중간소설이 생겨난 토대로 작용했다.

‘중간소설’이라는 명칭은 하야시 후사오(林房雄)가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설과, 구메마사오(久米正雄)가 하야시 후사오의 소설을 가리켜, ‘대표적인 중간소설’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도 있다. 이 두 사람이 중간소설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간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후나하시 세이이치(舟橋聖一), 니와 후미오(丹羽文雄),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시나카 선생 행상기(石中先生 行狀記)』(1948년-50년, 속편 1953년-54년)를 쓴 이시사카 요지로(石坂洋次郎)는 대표적 중간소설 작가로 독자들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중간소설의 성행은 시간이 흐르면서 순문학의 쇠퇴를 가져왔으며, 또한 순문학과 통속문학과 구분의 애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순문학의 변질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학의 세속화와 타락을 불러오는 역작용도 있었다. 순문학 작가가 월간(月刊) 또는 주간(週刊)의 연재소설을 통해 중간소설을 쓰면서, 독자들이 작가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11) 川島秀一(2000)「甦る<風景>」『遠藤周作〈和解〉の物語』和泉書院所収, p.216

12) 『死海のほとり』1973년 신초사(新潮社)에서 간행. 이미 쓰여진 연재소설을 군중의 한사람-군중의 한사람 6으로 구성하였고, 순례1-순례7을 덧붙여 완성한 소설

13) 笠井秋生(2000)「「おバカさん」論—遠藤周作のイエス像—」『作品論遠藤周作』所収 双文社, .90

엔도가 중간소설을 통하여 무엇을 썼는가를 찾는 일은 엔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엔도의 첫번째 중간소설인 『오바카상』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2. 『おバカさん』에서의 신의 모습

### 2.1 등장인물들의 인식변화

『오바카상』<sup>15)</sup>은 1959년 3월 26일에서 8월 25일까지 아사히(朝日)신문에 연재된 엔도의 첫 신문소설이다.

다카모리와 여동생 도모에 남매에게 8년 전부터 편팔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 가스톤 보나파르트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왔다. 조만간 일본에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마중나간 남매 앞에 나타난 것은 못생기고 얼빠진 얼굴을 한 큰 체격의 남자였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대하고 누군가에게 속더라도 인간을 끝까지 믿어보자는 것이 일본에 온 이유였다. 언뜻 보면 바보로밖에 보이지 않고 언제나 남의 말을 액면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가스톤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켜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인간을 믿어보려고 한다.

다카모리와 도모에 남매는 상상하던 것과 너무도 다른 가스톤의 모습에 실망하여 바보스런 얼굴을 한 채로 다른 꿈꿉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게 된다. 하지만 비웃음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간과 심지어 동물까지도 포용하고 희생하는 가스톤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이 열리게 된다.

순수하게 타인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든 믿고, 속고 배신당해도 그 신뢰나 애정을 계속 지켜가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바보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니다. 오바카상이다. 인생에서 자신이 커놓은 작은 불빛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오바카상이야.

처음으로 도모에는 바보와 오바카상이라는 두 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진실 되게 타인을 사랑하고 믿으며, 속고 배신당해도 그 신뢰와 애정을 지켜나가는 인간을 세상은 바보라 할지도 모른다.

(p.235)

14) 遠藤 祐(1975)「遠藤周作の輕小説」『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6月号, p.110

15) 본문 인용은 遠藤周作『おバカさん』(1970) 角川文庫에 따름.

남매의 가스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바보처럼 보이던 평범한 한 남자가 바보스러움을 넘어 서서히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인(聖人)이 되어 감을 보여 준다

슬프지만, 밝은 소설을 써 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인공은 제가 평생 동경할 만 한 인물입니다. 이 주인공을 반대로 바보 - 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 바보인가는 소설을 읽으면 독자도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오바카상』은 멍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장난기 많은 자신의 아이에게 바보라고 얘기할 때의 애정을 작가는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품고 있습니다. 열심히 써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sup>16)</sup>

『오바카상』예고편인 「작가의 말」에 엔도가 했던 말인데, 도모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스톤은 폐병에 걸린 살인청부업자 엔도와 만나게 된다. 엔도는 대학출신의 엘리트이면서 형을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씌운 고바야시(小林)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인청부업자가 된, 인간을 불신하는 남자이다.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복수심에 가득 찬 엔도에게 끊임없는 믿음과 관심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전한다.

‘착한 척 하고 있네. 선의 따위가 이세상에서 제대로 통할 줄 알아. 애정이나 신뢰 따위는 모두 편리하려고 사용하고 있는 말일뿐이야.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 (p.198)

마침내 엔도가 형의 원수 코바야시를 늪의 둔치에 유인하는데 성공하여 권총을 손에 쥐고 복수를 결행하려고 했다. 가스톤은 필사적으로 엔도가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둘의 싸움에 끼어들다가 삽으로 맞는 도중에도 둘 사이에 몸을 던진다. 병든 몸의 엔도는 기력이 다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다카모리와 도모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늪의 둔치에는 엔도가 쓰러져 있었을 뿐, 못생긴 외국인 가스톤은 볼 수 없었다. 엔도는 기절하는 순간 한 마리의 백로가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한다. 가스톤은 마치 그 백로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파랗게 빛나고 있는 하늘을 향하여 한 마리의 백로가 새하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모습이 희미한 눈에 비추었다.  
아.....가스톤, 안녕.

16) 「朝日新聞」1959.3.23 작가의 말에 수록.

다카모리는 그 백로를 향하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p.309)

『오바카상』의 아사히신문 연재와 함께 1월부터 10월까지의 『화산(火山)』을 「문학계(文学界)」에 연재했다. 또한 2월에는 『마지막 순교자(最後の殉教者)』를 「별책 문예춘추(別冊文芸春秋)」에 발표하였다. 『화산』에 등장하는 배은망덕한 신부 듀랑(デュラン)<sup>17)</sup>은 『황색인(黄色い人)』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일본인들의 가톨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는 악의 충동과 신에 대한 깊은 회의감으로 표현되는 이 화산은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인간 세계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악의 충동은 더 말 할 것도 없이 『오바카상』에 등장하는 킬러 엔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엔도의 눈에 비친 백로의 모습은 엔도의 성인(聖人)화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전해준다.

이것으로 됐어. 그 남자는 어차피 사라질 인간이었으니까.....『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sup>18)</sup>의 주인공처럼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 거야.

(p.310)

가스톤이 사라지고 없는 모습을 본 다카모리의 마음 속 생각이다. 다카모리는 가스톤의 운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독자의 마음도 다카모리의 마음속의 확신과 겹쳐진다. 다카모리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가스톤(ガストン)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잘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다카모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둠에 둘러싸인 풍경 속에서 작가 엔도가 표현한

- 
- 17) 『황색인』에서 류머티즘으로 다리를 절며, 포교의 땅 일본에서 여자와 바람이 난 50대 가톨릭 신부로 배교자로 낙인찍혀 사람들을 피해 살아있는 시신처럼 사는 인물로 그려졌다.
- 18) 9세기 말경. 작자 미상이다. 가나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헤이안 시대 최초의 모노가타리 문학이다. 전설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가구야 히메’를 둘러싼 귀족의 구혼 이야기가 작품의 축을 이루고 있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율령 정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지식인이 속세의 권력을 부정하고 정화된 이상향에 대한 염원을 가구야 히메에게 맡겨 제작한 성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간략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다케토리노 오키나(대나무를 취하는 노인)가 대나무 안에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여자 아이를 발견했다. 이를 데려다가 노부부는 ‘가구야히메’라고 이름 붙여 소중하게 키운다. 3개월 만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가구야 히메에게 많은 남성들이 구혼해 온다. 모두가 체념하고 최종적으로 5명이 남게 되었는데, 히메는 이시즈쿠리노 미코(石作の皇子), 구라모치노 미코(くらもちの皇子) 등 5명에게 각각 난제를 부여해 성공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한다. 난제라 함은 불 귀의 가죽옷, 용의 목의 구슬 등을 취하여 오라는 식의 황당한 이야기인데, 다섯 명의 귀공자들은 나름대로 궁리에 궁리를 더하여 일을 성사시키려고 갖가지 술책을 써 보지만 모두 실패하고 만다. 미카도(帝)도 가구야 히메의 명성을 전해 듣고 접근해 오지만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데는 실패한다. 그 후 3년이 지난 어느 봄날부터 가구야 히메는 달을 우러러보며 시름에 잠기는 일이 많아진다. 노부부는 걱정이 되어 이유를 묻지만 좀처럼 답변을 듣지 못한다. 그런데 8월 15일이 가까워 오며 따라 히메의 시름과 눈물은 그 정도가 심해지고, 마침내 중추명월 밤에 사신들이 달 세계로부터 자신을 맞으러 와서 자신은 달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라는 사연을 털어놓는다. 오키나와 미카도는 병사를 동원해 달세계의 사신들로부터 가구야 히메를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여 가구야 히메는 달세계로 승천해 간다.

것도 인간세계의 어둡고 무거운 풍경이다. 엔도에 대한 연민을 품고 그저 뒤를 따라가는 일, 삽으로 맞아 피범벅이 되면서까지 엔도에게 믿음을 주려는 가스톤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비참함과 슬픔을 모두 짊어지고 사라진 가스톤이라는 남자의 존재. 가스톤의 그 한결같은, 순진함은 무한한 사랑으로 끝없이 감싸고 용서하는 모성적인 신, 즉 엔도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동반자 예수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 2.2 부성에서 모성으로

엔도는 『성서속의 여인들(聖書の中の女性たち)』(1959년)에서 ‘나는 『오바카상』이라는 작품에서 베르나노스<sup>19)</sup>의 『시골사제의 일기(田舎司祭の日記)』나 모리아크<sup>20)</sup>의 『어린 양(仔羊)』에 그려진 주인공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베르나노스의 『시골사제의 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프랑스 북부에서 온 시골 교구의 젊은 사제이지만 성인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인물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몸이 약하며 알콜의존증을 지닌 그는 인격이 특별히 우수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의를 갖고 행한 일은 대부분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 버린다. 주인공의 설정 하나만 봐도 『오바카상』이 이 작품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보수적이며 정체된 자신의 교구를 활성화시키려고 다양한 제안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멀리하게 된다. 어느 날 사제는 많은 양의 피를 토하고 의사를 찾지만 그의 몸에는 이미 암이 퍼졌고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오열하는 사제의 고뇌는 평범한 인간을 느끼게 해 준다. 사제는 공포에 떨면서도 무서우면 무섭다고 창피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최후를 맞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간다. 작품의 마지막에는 사제의 죽음을 지켜본 친구의 편지가 첨부되어 있다. 죽음을 맞은 사제는 평온하게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고 한다.

19) 조르주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 1888년 2월 20일 ~ 1948년 7월 5일, 프랑스 파리 출생)는 프랑스의 가톨릭 작가이다. 20세기 프랑스 기독교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간의 고뇌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하기 위해 인간적 차원을 넘어 신비로운 영적 차원에서의 글을 그려 냈다. 1936년,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Journal d'un curé de campagne)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음.

20) 프랑수아 모리아크(Francois Mauriac, 1885년 10월 11일 ~ 1970년 9월 1일) 프랑스의 소설가로 195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심리소설의 전통을 이었지만, 복잡성, 혼돈의 세계를 혼돈 그대로 라신적 수법으로 받아들였다. 작품의 무게가 문체에 있다.

평범한 사제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으로 조금씩 성스러운 어떤 것으로 변한 것이다. 그곳에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화<sup>21)</sup>의 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제가 일상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던 외중에 조금씩 성화되어 보다 높은 인간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모든 것에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다.

가스톤은 사람을 의심할 줄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슬픈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삶이 불행해도 자학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불행이나 슬픔을 참고 있는 인간이다. 가스톤도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그저 하나의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사제도 가스톤도 자신이 그저 하나의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약함에 공감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다케다 토모주는 오히려 『오바카상』으로 시작되는 경소설군 이야말로 가장 대담하면서 선명하게 사랑을 추구, 묘사한 작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sup>22)</sup>고 말했다.

『오바카상』에서 가스톤을 통해 나타나는 신은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끝까지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어 갖는 존재이다.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의 동반자 가스톤을 통해 엔도는 자신이 추구하는 예수를 그려냈다.

고통의 공감은 또한 운명의 연대감으로 바뀌 말해도 되는데, 그것은 엔도류의 성서 속에 있는 사랑의 성육신(成肉身)<sup>23)</sup>이다.<sup>24)</sup> 운명의 연대감이란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엔도는 1966년 『침묵』을 발표하여 종래 부정적 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가톨릭의 모성적인 면을 전면으로 표출하여 함께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처음 명확히 세상에 선보였다. 또한 1973년에 발표된 『사해의 주변』에서는 모성적인 신을 보다 심화시킨 언제나 곁에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존재인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예수상을 확립하고 있다.

함께 슬퍼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엔도가 이해하고 있는 신의 모습인데,

21) 성화(聖化)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며 거룩을 의미하는 라틴어 sanctus에서 유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며 그것을 통해 점점 성숙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의 거룩함과 성스러움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 武田友寿(1975)『遠藤周作の文學』聖文舍, p.156

23) 성육신은 가톨릭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하느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곧 무한한 존재이신 하느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된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가 성육신한 하느님 즉, 하느님의 현현(Epiphany)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느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믿는다.

24) 武田友寿(1975)『遠藤周作の文學』聖文舍, p.148



그것은 그대로 『오바카상』의 가스톤의 이미지와 중복된다.

그렇다면 이미 『오바카상』을 발표한 1959년의 시점에서 엔도가 이해한 가톨릭은 부정적인 것에서 모성적인 것으로 바뀌어 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 3. 『おバカさん』으로 본 엔도의 중간소설의 특징

엔도의 중간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특별한 매력의 인물이라기보다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거나, 언젠가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 기분이 들게 한다. 예를 들면 『내가·버린·여자』의 모리타 미츠<sup>25)</sup>와 『오바카상』의 가스톤 보나파르트, 『헤치마군』의 도요토미 후나키 치<sup>26)</sup>과 같은 인물 등을 들 수 있다. 이 인물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사항이 있다.

그들은 미인이거나 위인도 아니고, 뛰어난 교양과 지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을 짓밟고 기만하면서까지 탐낼 부나 명예나 지위를 가진 인간들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갖지 않았고 우둔하며 요령이 없고 바보같이 정직하고 남에게 속기 쉽고, 이용당하고는 버려져 모두에게 경멸당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삶을 부여받은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론을 적용하면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 ‘경소설의 주인공들’이란 말하자면 그러한 슬픈 피에로라고 생각하고도 싶어질 것이다. 단지 그들이 갖는 공통점이란 사람을 의심할 줄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슬픈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삶이 불행해도 자학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불행이나 슬픔을 참고 있다 - 는, 언제나 손해를 보는 인간들이다. 이러한 인간을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소설을 다 읽은 후에 남는 감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며, 휴머니티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존재하는 숭고함 등에 접촉하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경험을 나는 ‘인간성화’의 실감이라고 불려도 좋다고 생각한다.<sup>27)</sup>

『오바카상』의 가스톤 보나파르트 같은 낙약함을 가진 남자가 이 소설이 끝났을 때 인생의 숭고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조금씩

25) 모리타 미츠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이용한 남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애덕의 실천을 행하는 주인공이다.

26) 헤치마군의 헤치마는 수세미란 뜻으로 주인공 도요토미를 뜻한다. 가스톤처럼 말상에 바보스러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27) 武田友寿(1989)『狐狸庵先生の天使たち-1-遠藤周作「軽小説(エンタ-テインメント)」の世界』世紀編集室, p.83

성스러운 어떤 것으로 변한 것이다.

또 엔도의 중간소설은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바카상』에서도 가스톤이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살인청부업자의 이름이 엔도인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중인물로서 엔도 슈사쿠가 등장하여 그 집필동기를 작중에서 나타내는 것은 독자에게 실제로 집필하고 있는 엔도 슈사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또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동시대의 도시의 모습이나 유행을 작품의 배경으로서 삽입하는 것,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을 작품에 포함시키는 것도 엔도의 중간소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 이는 모두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현실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

중간소설도 다른 순수소설과 같이 근본적으로 가톨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순수소설에서는 반복적으로 쓰이는 신, 기독교, 성모, 십자가 같은 말들이 『오바카상』을 비롯한 중간소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 마주해야만 하는 신문소설에 있어서 특정 테마를 소재로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서구와 달리 가톨릭의 전통이 없는 일본에서는 성서의 말들, 고도한 종교철학이 담겨져 있는 가톨릭용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더 일반적이고 일본인들도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여 다시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순수소설에서는 문장구성에도 편지나 수기형식이고 주인공의 독백을 사용하여 복잡하게 마무리 하는데 반해 중간소설은 3인칭에 의해 흐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문장자체도 꽤 평이하고 읽기 쉽다. 재미에 이끌려 쉽게 쓰여있는 이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가톨릭에 관심이 없는 일본인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구상해낸 독특한 엔도의 가톨릭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가톨릭을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세계로 지향을 위해 신문소설 『오바카상』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TV라는 미디어에도 엔도는 원작으로서 작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엔도가 관여한 TV 드라마의 수는 37편이며, 연차순으로 열거해 보겠다.<sup>28)</sup>

28) 小嶋洋輔(2012)『遠藤周作論 -「救い」の位置』雙文社出版, pp.65-67

- 「おバ카さん」 一九六〇年九月二日放映・KR(現TBS)
- 「再発」 一九六〇年九月二日放映・KR(現TBS)
- 「集団就職」 一九六一年二月二四日放映・TBS
- 「へちまくん」 一九六二年の六月二九日、七月六日放映・TBS製作
- 「ミスターガンノロ」 (阿河弘之との共著)一九六四年一二月四日放映・TBS製作
- 「わたしが棄てた女」 一九六四年一二月二五日放映・TBS製作
- 「奥様は軽井沢がお好き」 一九六五年八月二八日放映・NTV製作
- 「美人にモテル方法」 一九六六年一月二二日放映・NTV製作
- 「おやじさん」 一九六七年四月六日~五月二五日(全八回)放映・NET
- 「へちまくん」 一九六七年八月一九日放映・NHK製作
- 「うちの親爺」 一九六九年二月二日放映・TBS製作
- 「どっこいショ」 一九六九年六月三〇日~九月二六日(全六五回)放映・THK
- 「結婚」 一九六九年八月一八日~二九日(全一〇回)放映・NHK製作
- 「大変だァ」 一九七〇年一月一二日~三月三〇日(毎週月曜日)放映・MBS
- 「おバ카さん」 一九七一年二月二三日~三月三〇日(毎週火曜日)放映・MBS
- 「ただいま浪人」 一九七二年三月二七日~六月五日(毎週日曜日)放映・CX
- 「知らぬが仏」 一九七二年四月二日放映・TBS製作
- 「灯のうるむ頃」 一九七四年七月八日~二六日(全一五回)放映・NHK製作
- 「さらば、夏の光よ」 一九七四年七月一四日放映・TBS製作
- 「もう一人の不龍獅子虎」 一九七八年一〇月一六日放映・NHK製作(脚本遠藤)
- 「わかれ道」 一九七八年一一月六日~二四日(全一五回)放映・NHK製作
- 「闇の呼ぶ声」 一九八三年七月一六日放映・TBS製作
- 「松田聖子の一はじめての事情」一九八三年一〇月一八日、二六日放映・TBS製作
- 「遠藤周作の悪霊の午後」 一九八三年一二月三日放映・TBS製作
- 「さらば、夏の光よ」 一九八四年七月九日~九月二八日(全六〇回)放映
- 「女の一生」 一九八五年三月一日、二日放映・ABC製作
- 「蜘蛛」 一九八六年八月二二日放映・KTV
- 「わが恋う人は」 一九八八年四月二九日放映・CX
- 「長女の恋」 一九八九年一〇月二五日放映・NTV
- 「ファーストレディーさらば愛しき昭和ー愛と権力への会談」一九九〇年四月一二日放映・TX製作
- 「悪霊の午後」 一九九二年五月一四日放映 YTV製作
- 「大友宗麟一心の王国を求めて」二〇〇四年一月二日放映・NHK製作

이상이 원작을 TV 드라마로 제공한 것 들이다. 작가나 작품의 상업화화 역시 더 많은 작품으로 작가의 의도를 쉽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대중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게 되는 것이다.

#### 4. 결론

도스토예프스키는 너무나 이상적 인간 즉, 그리스도에 가까운 인간을 『백치(白痴)』<sup>29)</sup>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이러한 대결작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저도 자신의 기독교를 『바보(おバカさん)』라는 비슷한 주제로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sup>30)</sup>

『백치』의 주인공을 너무나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엔도는 이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스도에 가까운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동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표현한 『오바카상』의 주인공 가스톤은 너무 순수하고 바보스러워서 남에게 속고 무시당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믿는다. 인간을 믿는 것을 자신의 업무라고 말하는 이 바보스러운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이 숭고한 흔적을 남기고, 죄의식이 결여된 자들에게 인간의 양심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자각하게 하는 존재이다.

당신의 소설에 나오는 예수는 아주 온화하고 일본인에게도 대단히 쉽게 친근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일본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내가 본 예수입니다<sup>31)</sup>

엔도가 추구하는 신은 부성적 신이 아니라 한없이 부드럽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성적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성적 사랑의 신의 모습을 가스톤을 빌어 나타낸 것이다. 엔도는

29) 도스토예프스키의 두 번째 장편소설로 “신성한 바보”의 모티브를 재창조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남몰래 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백치”는 선량한 미숙한 공이다. (작가 자신처럼) 간질병 환자인 그는 먼 친척이자 부유한 장군의 아내인 예판친 부인과 지내기 위해 스위스의 요양소에서 러시아로 막 돌아온 참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186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작가는 미숙인이 예판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을 그려낸다.

30) 遠藤周作(1964)『愛の男女不平等について』『婦人公論』3月號

31) 遠藤周作(1997)『私にとって神とは』光文社, pp.23-24

이 모성적인 사랑의 신으로서의 인물을 『내가·버린·여자』의 모리타 미츠라는 주인공에게도 적용했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미츠는 언뜻 보기에는 바보같고 우둔하게 보이지만, 이런 미츠와 연관되는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과 감동을 받는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모티브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인생을 표현하고자 했던 엔도의 창작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내가·버린·여자』의 등장인물의 평범한 성격이나 도쿄 거리의 일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작품이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집필했다. 이는 또한 『오바카상』의 주제와 이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엔도는 1966년 『침묵』을 발표하여 종래 부정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신(神)의 모성적인 면을 전면으로 표출하여 함께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명확히 세상에 선보였다. 함께 슬퍼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엔도가 이해하고 있는 신의 모습인데, 그것은 그대로 『내가·버린·여자』의 미츠나 『오바카상』의 가스톤을 통해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중간소설이 형상하여 보여주고 있는 문학세계와 그곳에 투영되어 있는 작가의 의중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일면의 문학세계만을 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이 없는 현대인의 고뇌는 특히 중간소설에서 엔도가 묘사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신이 없는 현대인은 즉, 소설작품을 즐기는 일본의 대부분의 독자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중간소설의 존재는 이러한 신이 없는 현대인이라는 부분의 독자들을 향한 어떠한 접근이었던 것은 아닐까.

즉 독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엔도의 중간소설이란 작가 엔도 자신이 의도한 모성적이며 동반자 예수로서의 가톨릭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엔도가 작가로서 활동함에 있어 일본인에게 맞는 가톨릭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1959년의 중간소설 『오바카상』의 연재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遠藤周作(1964)『愛の男女不平等について』『婦人公論』3月號

\_\_\_\_\_ (1970)『おバカさん』角川文庫, p.198, p.235, p.309, p.310

\_\_\_\_\_ (1997)『私にとって神とは』光文社, pp.23-24

\_\_\_\_\_ (2000)『私とキリスト教』全集12, p.306

遠藤 祐(1975)『遠藤周作の輕小説』『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6月号, p.110

笠井秋生(2000)『「おバカさん」論—遠藤周作のイエス像—』(『作品論遠藤周作』所収) 双文社, p.90

笠井秋生・玉置邦雄編(2000)『作品論 遠藤周作』双文社出版, pp.88-89

川島秀一(2000)『魅る<風景>』『遠藤周作<和解>の物語』<和泉書院所収>, p.216

久保田暁一(2006)『日本の作家とキリスト教』朝文社, p.7

小嶋洋輔(2012)『遠藤周作論 -「救い」の位置』雙文社出版, pp.65-67

武田友寿(1975)「戦後文學における遠藤周作」『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6월호, p.55

\_\_\_\_\_(1975)『遠藤周作の文學』聖文舎, p.148

\_\_\_\_\_(1975)『遠藤周作の文學』聖文舎, p.156

\_\_\_\_\_(1989) 狐狸庵先生の天使たち-1-遠藤周作「輕小説(エンタ-テインメント)」の世界』世紀編集室, p.78

\_\_\_\_\_(1989) 狐狸庵先生の天使たち-1-遠藤周作「輕小説(エンタ-テインメント)」の世界』世紀編集室, p.83

---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

〈要旨〉

엔도 슈사쿠 『오바카상(おバカさん)』 고찰

- 엔도의 중간소설의 의미 -

엔도는 일본 전후의 가톨릭문학계의 선구자로서 평론과 소설을 통하여 다른 작가가 파고들지 못한 종교적과제를 추구해왔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톨릭의 유일신을 탐구해가며 일본문단에서 황무지와 같았던 가톨릭문학을 한 장르로서 구축하였다

엔도는 거리감이 있었던 서구의 유일신을 일본에서 어떻게 토착화시킬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단으로서 소설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다. 엔도가 추구하는 신은 부정적인 신이 아니라 한없이 부드럽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성적인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성적 사랑의 신의 모습을 가스통을 빌어 나타낸 것이다. 독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엔도의 중간소설이란 작가 엔도 자신이 의도한 모성적인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 예수로서의 가톨릭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엔도가 작가로서 활동함에 있어 일본인에게 맞는 가톨릭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1959년의 중간소설『오바카상』의 연재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Study of Endo Shusaku 『Obacasang』

- Meaning of the Endo's Middlebrow fiction -

Endo had researched on how we can approach Catholic that has a distance, during whole his life, constantly, and he cultivated Catholic literature like wasteland in Japan literature as a genre.

To sad together and to forgive all and to love are God's figure that Endo understood, it is overlapped as it is, with Gaston's image in <Obacasang> If so, in situation of 1959 that <Obacasang> was published, the fact that Catholic understood by Endo is changed from paternity to maternal, can be reasoned.

Endo's works is divided as the pure fiction and the middlebrow novel according to genre and contents.

If someone doesn't observe the other rich literature world that the middlebrow novel showed by a shape and the author's face projected in it, Endo Shusaku's research also is no more than showing only one side literature world.

There is Endo's worry for contemporary man of no God in the middlebrow novel, in other words, most Japan readers who enjoy fiction work.

Endo's the middlebrow novel can be supposed as a place that delivers readers a well-fitting Catholic, in other words, a place that seeks the delivery place.

Really, in the point that Endo act as a author, the time that he found issue of Christianity suitable for Japan was the time that the first work of the middlebrow novel of 1959, <Obacasang> was published serially.